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 1995년 목회자의 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희망과 영광의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괴로웠던 시절, 불안과 공포의 살얼음판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체험케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국민적 좌절과 절망으로 실의의 늪지대에

빠져 방향감각마저 상실한 채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목자장되시어 우리를 광활한 초장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995년 새해를 주셨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 위에서 당신이 세우신 몸 되신 서울교회를 통해 이 민족에게 정직한 마음과 사랑의 행실과 무엇보다도 깨끗한 믿음을 주시어 눈물과 고통의 때를 벗어난 희망찬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서울교회는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필요한 대지와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시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100교회 자매교회 사역자들 위에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도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의 킴치세미나와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동참했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사는 우리 민족, 특

별히 휴전선 너머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주시되 흠어진 민족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시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전에 이 나라 4만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사 일곱 벌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 위에서 먼저 일어나 이 나라 공직자들

들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에서 봉직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그들 가슴마다 새겨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이 백성의 죄를 다시 한 번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고치시며 진노의 채찍을 거두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한번 무릎을 꿇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십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던 하나님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꺾으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사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수 있는 형통의 복과 많은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예루살렘의 복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상에 돌린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오니 어린 감람나무같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쓸모있고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와 서약이 이 한 해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5년 1월 1일

기도자: 이종윤 목사

## 순결서약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오늘 찬양예배 시에 13세 이상 미혼자를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을 한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요일 3:3) 결혼 전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서약식은 점차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갈 순결서약식의 시범적인 것이기도 하다.

서약한 이들이 서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의 격려와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서약식에서는 자신의 서약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금지환을 선물하는데 반지 대금은 서약자 본인(혹은 부모나 후원자)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신청자와 부모, 후원자들을 위해 오늘 4시 20분부터 2층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오늘 서약식에 참가하는 중·고등학생은 교복을 착용하며, 대학생과 청년들은 정장을 하도록 한다.

## 산상수련회

1월 6일(금),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  
새해 첫 다락방 모임은 목요일에 갖도록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한 산상수련회가 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곤지암 소재 소망수양관에서 열린다. 강남노회가 주최하여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강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개회예배는 권용평 목사(노회장)가 인도하며,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청지기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가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수련회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은 목요일에 가지도록 한다.

수련회 참석자는 교회에 함께 모여 8시 30분에 출발한다. 당일 점심식사는 기도원 식당에서 매식이 가능하다.

# 새해소망

##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 있다면

김광신 (장로)

복음서를 읽다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그같은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였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한가지 소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짐짓 머쓱해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었고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줄 수 있을만큼의 소망을 꿈꾸어보거나 작정해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을 터뜨리고 싶고 주의 뜻에 접근하는 생애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취급할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싶다.

식욕이 왕성하면 음식 맛이 나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갈급함이 시편 기자의 그것 이상이고 싶다. 며칠을 굶어가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싶은 충동으로 꼭 차고 싶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당신만을 목상하며 긴 시간을 오직 당신으로 채우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면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생동감이 넘쳐서 어린이 소풍가는 날 전 날 밤 같은 기분이고 싶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만족한 일년이고픈 심정을 주께서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 성전 건축의 원년이 되기를

최완 (권사)

‘새롭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설레임을 주는 말이다. 더욱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해 바뀔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감사와 겸손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해에는 기쁜 일 보다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모두가 황금만능주의의 기형적인 부산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무력한 것이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신앙생활의 중요함이 일상생활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원한다.

그간 우리 서울교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 갱신 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김치세미나를 열어 세계선교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집회장소가 마땅치 않아 이곳 저곳 전전하고 더 많은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없음에 죄송할 따름이다. 새해에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 이를 위하여 “구하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회수권을 인정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한다.

부족한 이 죄인이 권사직을 임명받은 지난 해는 내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해였다. 하나님에게 소원하기를 굶어서 열심히 살아서 늙었을 때에 그간 은혜 속에 살아온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면 두려운 마음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막상 교회(古稀)를 앞두고 보니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가 않다. 70년이나 써 먹은 육체는 고장난 기계 같아서 움직이기에 힘에 겨우며 지체로라도 봉사하려고 하니 굳어진 머리는 깨우칠 가망이 없고 젊었을 때 주님께 봉사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나 여생을 그간 못다한 몫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온 몸을 바쳐 봉사하리라고 다짐해 본다.

## 스데반 집사처럼

김일용 (집사)

성경 속에 잘 소개되어 있는 스테반 집사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날 나도 그 집사님을 사도행전 7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다. 그의 이름을 ‘왕관(CROWN)’이라고 말한 어느 성경학자의 표현은 아마도 그가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순교자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그 엄청난 순교 실행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한 유언적인 설교를 다시 읽게 되었을 때 나는 새삼 깜짝 놀랐으며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안이한 모습과 비교해 부끄럽기 한이 없어서 차마 그가 말한 최후의 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를 그냥 읽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러한 말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원수들이 던진 돌 무덤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에서 도성인신하신 참인간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스테반 집사의 그 최후의 모습에서 죄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모습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서울교회에서는 안수집사들의 친목모임의 하나로 ‘스데반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새해부터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할 수가 없다. 이 시대 이 때에 있어

서 참다운 ‘스데반상(像)’이라 한다면 간단히 말해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스테반회 전회원이 성경공부를 최우선적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작정하였다는 소식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외에 한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던지는 돌들을 무조건 달가히 맞으며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의 일생일대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 우리 몸에 채울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스테반 집사가 2000년 전 돌에 맞아 죽음으로 순교하였을 때 누가 그 때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할 줄 알았겠으며, 순교의 현장에서 중인들의 의복을 지키고 있던 청년 사울도 그 후에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영광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원컨대 주여! 우리들 모두에게 한번 더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되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실존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참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결코 철학자적인 교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실제로 행동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 당대에 일으킬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남편과 함께 주일성수를

박진희 (7교구)

이제는 영원한 과거가 된 94년. 새로 맞이하는 95년. 설렘, 희망, 기대감보다는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러워 집니다.

어머님의 사랑 아래 우애로 뭉쳤던 우리 삼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해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빠의 오랜 유학생생활의 승전고 소식과 저와 동생에게 한꺼번에 열어 주신 결혼의 문. 우리 가족이 받아 누리던 지난 한 해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가정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아브라함 가족으로 자랄 수 있을런지요. 지금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남편과 함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간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후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제간의 반가운 얼굴을 맞대는 청사진을 오랫동안 그려왔었는데... 학생 시절 주님을 영접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린 남편이 옛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남편을 위해 그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자 했던 소극적 방법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이 한 해를 대처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일성수 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며 행동을 같이 하려 합니다. "주여 제가 연약하오니 저를 먼저 붙잡아 주소서" 하는 기도를 앞세우고, 남편의 신앙성장을 위해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로 한 해를 보내려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예정표가 정해졌을 때 봉사도 함께 하며 가정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된 자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된 많은 가정들의 신앙을 교훈으로 삼고 계획과 일의 진행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던 '94 성탄 축하의 밤'. 참석한 성도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 날의 행사는 다채롭고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종일관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서초구민회관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끝까지 서서 찬양해야 했던 성도들 왈 "우리 예배당 지으려면 이것 보다는 훨씬 커야 할텐데..."



▲ 교회학교 전체가 함께 꾸민 성극  
▼ 다같이 부르던 가슴 벅찬 성탄의 송가



★  
94  
성탄  
축하의 밤  
Merry Christmas!  
서울교회 온 가족이  
1994년 12월 24일 밤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 교회학교 장년부 개교

다음 주일부터, 12시 45분에 시작

교회학교 장년부가 다음 주일(8일)에 개교한다. 장년부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목표를 삶의 전 영역에서 천국시민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는 총 12개의 부서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성도가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집회는 II부 예배가 마친 후 1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 가지며, 청년부 이상 소망부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도는 박형용 목사가 한다.

### 박종상 전도사 부임

- 100교회 운동본부 간사로 -

우리 교회는 농어촌 지역 개척 교회 100곳을 자매교회로 선정하여 영적 지원과 더불어 물질적 지원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막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 박종상 전도사를 「100교회 운동」 간사로 초빙하기로 하였다.

박 전도사는 현재 장신대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졸업 후 아프리카니스탄 선교사로 헌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이다.

### 신년 새벽기도회

이종윤 목사가 느헤미야서 통해  
청지기 지도자론 강해

2일(월)부터 14일(토)까지 신년 새벽기도회는 이종윤 목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청지기 지도자론을 강해한다. 특별히 청지기 수련회가 있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는 새벽기도회를 5시에 시작한다.

### 사무직원 모집

장애인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

우리 교회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중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PC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업무는 교회 내의 자료의 입력과 출판과 관련된 원고의 입력 등이다.

## '95 청지기 수련회

1995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헌신된 청지기와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다. 1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한다.

직분자별 강의 내용과 강사, 워킹샵의 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입원
일자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5:00 5:30	청지기지도자론- 느헤미야서 강해 (강사:이종윤 목사)					
	제직과 섬김	지역장, 권찰, 다락방장의 역할과 임무	권사와 교회 (20:40 ~ 21:30)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찬양과 예배	전도회입원의 역할과 임무
6:10	강사:이종윤 목사	강사:김재호 목사	강사:장용휘 목사	강사:임진태 목사	강사:최병호 목사	강사:권상석 목사
6:15	자 리 이 동					
	부서별 모임	각 지회별 운영계획	영성훈련 (21:30 ~ 22:30) 담당: 최병호 목사	효과적인 학습지도방안과 부서별 목표설정	찬양의 실제	각 지회별 운영계획
6:30	담당: 지도 교역사	담당: 지도 교역사	유순화 전도사	담당: 지도 교역사	담당: 허희철 집사	담당: 지도 교역사

- \* 청지기수련회 헌신예배 - 8일(주일) 찬양예배 시
- \* 청지기 수련회 - 새벽기도회 시간에 실시, 권사수련회 - 수요일 II부 예배 후
- \* 장로수련회 - 16일(월) 오전 5시 30분부터

### 감사드립니다.

\* 서창원 · 이기숙 집사님 가정에서 성경책과 찬송가 50권씩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새가족이나 미처 성경, 찬송가를 못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홍정호 장로님께서 중국 심양에 있는 동북 신학생 10명에게 각각 박윤선 주석 전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중국복음화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오정수 장로님께서 장로교 신학대학 세계선교대학원에 유학 온 외국 목사님들의 동계수련회비 일체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 \* 원고를 기다립니다 \*

「순례자」는 성도들의 친교와 교육, 전도와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성도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원고접수, 정기구독 등의 문의로는 「순례자」 편집부를 지도하시는 장용휘 목사님(전화: 517-7651 ~5, 팩스: 512-1225) 이나 순례자 편집실(팩스: 516-9641)로 하시면 됩니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철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철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1995년 새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소서 - 교역자, 장로 일동 -

### 서울주간기도

1995년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시79:9)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왕상3:6)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행2:44-47)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왕상5:5)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